

## 피폭 75주년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념식전 위령문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념식전에 앞서 나가사키현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원폭 희생자의 영혼에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1945년 8월 9일, 이 상공에서 한 발의 원자폭탄이 작렬하였습니다. 강렬한 열선과 폭풍은 한순간에 거리를 파괴하고 7만 4000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방사선 피폭이라는 건강장해를 남겼습니다.

그 후 75년이 흐른 지금, 나가사키는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평화를 기원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며 다음 세대로 계승해 가는 것이 저희 나가사키현민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전술핵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른 핵무기 보유국도 핵군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핵무기는 인류에게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가 되기를’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금까지 원폭의 참담함과 비인도적인 모습을 호소해 온 피폭자 중 70%는 이미 돌아가셨으며 평균 연령도 83세를 넘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핵무기 폐절을 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38년 만에 나가사키현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확신 아래 “핵무기는 국제사회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에 새겨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나가사키에 방문하여 피폭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온몸으로 그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핵무기는 세 번째 사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병기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핵무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의지로 폐절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국제 사회의 선두에 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피폭자와 피폭 체험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확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폭에 희생된 수많은 영혼의 평안과 피폭자, 피폭 체험자의 건강을 염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핵무기 폐절과 세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위령의 글을 올립니다.

2020년 8월 9일  
나가사키현지사 나카무라 호도